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자치경찰제 100일...운남초 스쿨존 가보니

광주자치경찰위 합동단속 통해 안전한 등굣길 보장 학부모 “안심하고 아이 학교 보내...후문쪽 아쉽기도”

“학교에 아이를 보낼 때 불안했는데 확실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안심이 되네요.”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8일 100일째를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1호 시책으로 삼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단속에 나섰다.

7일 오전 찾은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운남초등학교 앞.

자치경찰들은 경광봉과 호루라기를 활용해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스쿨존 내 속도위반(30km/h이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 경찰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에게 “무슨 게임을 하니, 잘 살이니, 밥은 먹었니” 등 간단한 인사를 건넨 뒤 아이들의 등굣길을 즐겁게 했다.

또 신호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아이에게도 “뛰지 말고 천천히 가”라며 아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안전사고에 신경 쓰는 모습이였다.

신호등에 설치된 보행자 음성안내 보

조장치에서는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나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찰들의 모습에 신기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초등생 2학년인 한 학생은 “처음에는 경찰이 학교 앞에 있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말도 걸어주고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니 안전하게 보호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도 “아이를 등교시킬 때 항

상 불안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이 개선되다 보니 아이를 안심시키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학교 후문 쪽은 다소 미흡한데 이 곳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도 자치경찰들이 교통통제를 실시하자 이른 아침에도 불구,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길이 240m, 폭 10m 구간에 대해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를 보고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규석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광산구에는

운남초등학교가 최초로 스쿨존 시설물 개선사업 시범을 보였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시설물 개선만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의 특성을 감안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첫 번째 시책으로 결정했다”며 “어린이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효과분석이 끝나면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하고, 추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훈 기자



7일 오전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 현장인 광산구 운남초 앞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이 학생들이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도

해돋이 06:33 해질 18:07
달돋이 08:14 달질 19:24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 청소도 좋아요)
- 운동 70 (준비운동은 충분하)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3:10	08:24
목포	30-30		15:39	20:47
순천	20-20		10:12	03:44
여수	20-20	여수	22:24	16:12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북동/0.5-0.5m
오전	먼바다	북동-동/0.5-1.0m
오후	앞바다	동-남동/0.5-0.5m
오후	먼바다	북동-동/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0.5m
오전	먼바다	북동-동/0.5-1.5m
오후	앞바다	동-남동/0.5-0.5m
오후	먼바다	북동-동/0.5-1.5m

주간날씨

기간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9/토	(21/28)	(19/26)	(18/24)	(19/27)	(19/27)	(21/28)
10/일	(21/27)	(20/25)	(19/29)	(19/27)	(19/28)	(22/28)
11/월	(18/23)	(14/22)	(17/21)	(16/21)	(19/23)	(21/25)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오월어머니상에 정찬영·이인찬씨 선정

극단 푸른연극마을 단체상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은 7일 “제15회 오월어머니상 개인상 수상자로 정찬영 새미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증언치유프로그램 ‘마이데이’를 진행해 5·18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진해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등 투쟁 현장을 지키고 실무를 담당한 이인찬 씨와 5월의 정신과 가치를 예술로 승화



정찬영 이인찬

시극 극단 푸른연극마을도 각각 개인상과 단체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태훈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정책토론회 개최

14일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토크콘서트 형태 소통 자리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토다 토다 토크콘서트' 2021 학부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토론회는 교육 주체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교사,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실시된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 시 장애 요인 진단 및 해결 방안 모색 등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토론회로 참석한다.

토론회는 서로의 협력을 위로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설명회와 컨설팅, 학부모회실 설치 및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등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만 기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전적인 내용은 2022년 사업계획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 학부모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온·오프라인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 방식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인원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30명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광주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kbumo.gen.go.kr>)를 통해 참여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는 7일 “목례 인사 문화를 정착시켜 손을 매개로 한 감염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바이러스 전이 빈도 중 악수는 22%, 주먹악수는 16%를 차지한다는 미국 의학전문 콘텐츠 RELIAS MEDIA의 연구 결과에 착안했다.

접촉면이 좁을지라도 악수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전통인사인 목례를 장려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캠페인에는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했다.

또한 ‘악수 대신 목례’ 스티커 부착 인증 이벤트를 10월31일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치킨 기프티콘을 총 100명에게 지급한다.

/김동수 기자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주운전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및 사고 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연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